

# 訥齋 朴祥의 賦 研究

김동하\*

## <차 례>

1. 序論
2. 王道讚揚·至治憧憬
3. 山林處士의 樂道
4. 時事諷刺
5. 愛國 忠君
6. 抒情의 美學
7. 結論

## <국문 초록>

눌재 박상(1474-1530)은 일반적으로 절개와 의리의 선비이자 뛰어난 도학자, 청렴결백한 관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대 제일의 문장가이자 1160여 수가 넘는 시를 남긴 위대한 시인으로서, 호남시단의 祖宗으로 칭송되는 인물이다. 일찍이 정조는 『訥齋集』을 重刊한 뒤 인쇄해 올리도록 하교하며, “우리나라의 시 가운데에서는 오직 고(故) 교리 박은(朴聞)과 증 이조판서 박상(朴祥) 두 사람의 시가 있다는 것을 알 뿐이다.”라고 하여 그를 박은(朴聞)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언급했다. 또한 허균은 『惺叟詩話』에서 “조선 시대의 시는 중종 때에 와서 크게 이루어졌다. 박상, 신광한, 김정, 정사룡 등이 아울러 같은 시대에 났으니, 이때의 빛나고 울리던 시는 천고에 일컬어질 만하다.”라고 하여 중종 연간의 시단을 빛낸 대표적 시인으로 언급했다.

사실 눌재는 방대한 분량의 詩와 더불어 賦, 序, 記, 跋, 祭文, 文, 疏 등의 다양한 문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 탁월한 문장가요 위대한 시인이었다. 눌재가 평생 동안 남긴 다양한 문학 작품 중 흥미를 끄는 것은 무엇보다도 12편에 이르는 부라

\* 서강정보대학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12편의 賦가 모두 장편으로 쓰여 있어 전체 1424구에 이른 방대한 분량일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요순과 3대의 왕도정치, 유교적 세계관과 인간관, 春秋의 역사 의식, 맹자의 의리 사상 등 실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놀재 문학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피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놀재가 남긴 12편의 부를 내용적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았다.

놀재 부 12편 중 <夢遊>, <五絃琴>, <石鼓>, <登泰山小天下賦>, <黃鐘賦> 등 5편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주로 꿈이나 상상 내지는 환상의 기법을 통해 왕도를 찬양하고 지치를 동경하는 소망을 나타냈다. <夢遊>에선 3황5제 등 성인의 업적을 찬양하고 유교의 절의관에 기초한 역사관을, <登泰山小天下賦>에선 중국적 천하관과 儒道의 우월성을, <黃鐘賦>에선 周易의 우주관과 황제의 예악 사상을, <五絃琴>에선 순임금의 예악 사상을, <石鼓>에선 이상적 국가관 등을 표명했다. 놀재는 5편의 부를 통해, 德治에 기초한 王道政治가 실현되고, 하늘의 뜻이 펼쳐진 요순, 3대의 지치주의 시대가 구현되기를 갈망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놀재의 安貧樂道하는 삶에 대한 의지를 담은 작품에 <爲善最樂>이 있다. 屈原이 <어부사>에서 은사인 어부와의 문답을 통해 속세와 동화될 수 없는 작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처럼, 놀재는 <爲善最樂>에서 선비와 객과의 문답을 통해 선비의 진정한 즐거움을 표현했다.

놀재는 폭군인 연산군과 유약한 임금인 중종 시대를 살면서, 정치적으로 많은 좌절을 경험했다. 중종반정 이후의 혼란한 시대상을 중국 당나라의 五王에 비겨 표현한 작품이 <弔五王>이다. 중종반정의 공신들에 둘러싸여 나약한 모습만을 보이다가, 己卯土禍와 辛巳誣獄 등으로 많은 선비들을 희생시킨 당시의 가슴 아픈 상황을 풍자했다.

삼포왜란에서의 우리 군이 승리한 사실을 통해, 애국과 충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작품이 <平倭>이다. 왜적과의 싸움을 계기로, 국토방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장기적이고 원대한 유비무환의 대비책을 강조함으로써 애국과 충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놀이재는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파란과 굴곡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哀大鳥>, <海棠>, <聞杜鵑>, <擬自悼賦> 등 4편의 작품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난했던 가슴 아픈 사연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擬自悼賦>에서는 가족들의 잇단 죽음으로 인한 처절한 아픔을, <哀大鳥>, <海棠>, <聞杜鵑>에서는 각각 자신을 닮아 걸린 커다란 새, 모란과 같은 부류인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해당화, 밤새 피를 토하고 우는 두견 등에 비겨 능력을 지니고도 항상 정치 무대에서 소외되는 아픔을 노래했다.

이를 정리하면 王道 讚揚·至治 憧憬, 山林 處士의 樂道, 時事 諷刺, 愛國 忠君, 抒情의 美學 등으로 볼 수 있다.

**핵심어** : 訥齋 朴祥, 訥齋集, 賦, 王道 讚揚·至治 憧憬, 山林 處士의 樂道, 時事 諷刺, 愛國 忠君 抒情의 美學

## 1. 序論

놀이재 박상(1474-1530)은 일반적으로 「請復故妃慎氏疏」를 주도한 절개와 의리의 선비이자 뛰어난 도학자, 청렴결백한 관리<sup>1)</sup>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대 제일의 문장가이자 1160여 수<sup>2)</sup>가 넘는 시를 남긴 위대한 시인으로서, 호남시단의 祖宗으로 칭송되는 인물이다. 일찍이 정조는 『訥齋集』을 重刊한 뒤 인쇄해 올리도록 하교하며, “우리나라의 시 가운데에서는 오직 고(故) 교리 박은(朴聞)과 증 이조판서 박상(朴祥) 두 사람의 시가 있다는 것을 알 뿐이다.”<sup>3)</sup>라고 했다. 아울러 문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1) 놀이재는 담양부사로 있을 때 형옥에 계류되어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명예로운 청백리에 오르고, 왕으로부터 表裏를 하사받은 바 있다.

2) 박준규의 『호남시단의 연구』(194쪽)에는 1,164 수로, 김정수의 『전라도 사람들』 권4(277쪽)에는 1,184 수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3) 『朝鮮王朝實錄』, 正祖 43卷, 19年(1795 乙卯 / 청 건륭(乾隆) 60年) 10月 14日(辛

시문에 대해 논평하면서, “음취헌(挹翠軒)이나 박눌재(朴訥齋) 같은 이들의 시를 보면, 처음에는 좋게 여겨지지 않다가도 오래 보면 볼수록 좋아진다. 내 생각에 우리 동방의 詩集으로는 마땅히 이 두 詩家의 것을 정종(正宗)으로 삼아야 하리라 여겨진다.”<sup>4)</sup>라고 하여 박은과 함께 대표적인 시인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의 아우인 六峰 朴祐는 “풍아와 이소와 이백, 두보의 시에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놀재의 시를 알기 어렵다.”<sup>5)</sup>라고 평한 바 있다. 또한 허균은 『惺叟詩話』에서, “조선 시대의 시는 종종 때에 와서 크게 이루어졌다. 박상, 신광한, 김정, 정사룡 등이 아울러 같은 시대에 났으니, 이때의 빛나고 울리던 시는 천고에 일컬어질 만하다.”<sup>6)</sup>라고 하여 종종 연간의 시단을 빛낸 대표적 시인으로 언급했다.

사실 놀재는, “평생 동안의 저술은 천여 편에 달하고, 거기에는 온갖 문체가 두루 갖추어져 있다.”<sup>7)</sup>라고 평한 것처럼 방대한 분량의 詩와 더불어 賦, 序, 記, 跋, 祭文, 文, 疏 등의 다양한 문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 탁월한 문장가요 위대한 시인이다. 이러한 놀재의 다양한 문학 작품 중 흥미를 끄는 것은 무엇보다도 12편에 이르는 부라 할 수 있다. 그것은 12편의 賦가 모두 장편으로 쓰여 있어 전체 1424구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일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요순과 3대의 왕도정치, 유교적 세계관과 인간관, 周易의 우주관, 春秋의 역사 의식, 孟子의 의리 사상 등 실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놀재 문학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피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까닭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놀재가 남긴 12편의 부를 내용적 특징에 따라, 1.王道 讚揚·至治 憧憬 2.山林 處士의 樂道 3.時事 諷刺 4.愛國 忠君 5.抒情의 美學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卯) “我國之詩, 惟知故校 理朴間、贈吏判朴祥二人而已.”

4) 『朝鮮王朝實錄』, 正祖 43卷, 19年(1795 乙卯 / 청 건륭(乾隆) 60年) 11月 7日(甲寅) “如挹翠軒、朴訥齋諸詩, 初看不好, 久看愈好. 予以爲東方詩集, 當以此兩家爲正宗.”

5) 朴祐, 『訥齋集』, 「文集序」, “非深於風雅騷李杜者 則難能會訥齋之詩.”

6) 許筠, 『惺叟詩話』, “我國詩 至中廟朝 大成 以容齋相倡始 而朴訥齋 申企齋 光漢 金冲庵 淨 鄭湖陰 士龍 並生一世 炳煥鏗鏘 足稱千古也.”

7) 朴祐, 『訥齋集』, 「文集序」, “平生著述 殆千百餘篇 衆體兼備.”

## 2. 王道讚揚 · 至治憧憬

유교는 왕도정치를 바탕으로 한 지치주의를 이상으로 한다. 王道란 『書經』 「洪範篇」의 “치우침이 없고 공정하면 왕도가 광대하고, 공정하고 치우침이 없으면 왕도가 정직하다.”<sup>8)</sup>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공평무사한 중용의 정치를 의미한다. 또한 至治란 『書經』 「軍陳篇」의 “잘 다스려진 인간세계의 향기는 神明을 감명시킬 수 있다.”<sup>9)</sup>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하늘의 뜻이 펼쳐진 이상세계가 되도록 정치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유교적 정치 이념을 신봉하는 관리들의 이상은 왕도정치요 요·순, 하·은·주 삼대의 지치주의였다.

놀재는 전 12편의 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夢遊> <登泰山小天下賦> <黃鐘賦> <五絃琴> <石鼓> 등 5편의 작품을 통해, 왕도를 찬양하고 지치를 동경하는 자신의 소망을 드러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작품은 <夢遊>이다. 놀재의 부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무려 404구 2659자에 이르는 대작이다. ‘겨울 매화가 피어나는, 설달 어느 날의 충주 임소’에서의 꿈속에서의 경험을, 풍부한 상상력과 해박한 지식을 동원하여 뛰어난 문장력으로 엮어낸 작품이다. 서두에서 “나 지성에서 처벌을 기다리며. 가시덤불에 묶여 있음을 슬퍼한다.”라고 하여, 辛巳誣獄 직후 남곤이 앞장 선 홍문관의 논척으로 인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암시한다. 현실의 수심을 잊고자 청한 낮잠을 통해, 태초로부터 명나라까지의 중국 역사를 종횡무진으로 오가며 만난 인물들과 역사에 대한 냉엄한 평가라 할 수 있다. 복희, 신농, 황제 등 3

8) 『書經』, 「洪範」, “無偏無陂 遵王之義 無有作好 遵王之道 無有作惡 遵王之路 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 無反無側 王道正直 會其有極 歸其有極.”

9) 『書經』, 「軍陳」, “我聞 日 至治 馨香感于神明 黍稷非馨 明德惟馨 爾尚式時周公之猷 惟日孜孜無敢逸豫”

황의 위업을 찬양하고, 문왕에 대해선 백이·숙제에게 남긴 죄를 질책하며, 진시황에 대해선 통일의 업적을 인정하면서도 ‘양적의 씨’라고 비하하며, 한 고조 유방에 대해서는 ‘패권욕’에만 사로잡혀 있다고 힐난하며, 당의 태종에 대해서는 ‘貞觀의 治’보다는 도덕성을 들어 비난한다. 그러나 명의 주원장에 대해서는 “元의 비린내를 빨아냈다.”라고 하여 명의 탄생을 찬양함으로써 당시 조선 선비들의 친명 사상을 드러낸다. 또한 후한의 광무제에 대해서는 ‘요 임금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노력과 문물 장려’를 칭송하며, 그의 시종관이 되기도 한다. 전형적인 유학자인 놀재에게 가장 바람직한 국가는 송나라였다. 그래서

登崇坂而遠望: 높은 언덕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世幾變而爲宋兮: 세상은 몇 번이나 바뀌어 송나라 되고  
 混普率以春盎: 온 천지에 봄 기운 넘쳐난다.  
 赫四宗之相承兮: 빛나게 네 조상들 계승하여  
 陶吾民以禮樂: 우리 백성 예악으로 교화하였다.

라고 하여 송의 탄생과 예악에 의한 백성의 교화를 찬양한다. 이는 송나라가 문치주의를 표방하며 문화적인 풍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주자학으로 대표되는 신유학을 발흥시킨 때문이다. 놀재는 송의 조정에서 拾遺 벼슬까지 지내나, 천성의 강직한 성품으로 황제의 용안을 거슬리게 된다. 결국 신안의 수령으로 좌천되어 부임하는 도중, 상자에 가득한 상소문을 불태우다 잠이 깬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놀재는 42세 되던 1515년, 中宗의 본처인 愼氏의 복위를 피하다가 유배를 당했고, 46세 되던 1519년 己卯土禍가 일어나자 그 부당성에 대해 상소문을 올리려 했으나 일가친척의 만류로 상소문을 불태웠다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소신을 부득이 접어야 했던 아쉬움이 꿈속에서 재현된 것으로 추정된다. 초저녁 무렵 현실로 돌아와, “천 백년이 곧 밥 짓는 동안’이었다.”라는 소회를 밝힌다. 이어 神君의 “興亡治亂은 허깨비 꿈에 불과하고, 세상의 褒毀는 귀를 스쳐가는 모기 소리와 같다.”라는 말에 깨달은 바가 있어

毫山之大小也哉: 터럭과 산의 크고 작음이여  
 合千古爲一夢兮: 천고를 합쳐 한 바탕 꿈인 것을  
 胸中合乎九垓: 가슴 속에 온 누리를 품는다.  
 分禍福於地羽兮: 화복은 지우에게 주어 버리고  
 笑千載之接辛: 천 년 이어 쌓인 쓰라림 비웃는다.  
 掃鴨堂而端坐兮: 압당 쓸고 단정히 앉아  
 誦蒙莊之首篇: 장자의 첫 편을 낭송한다.  
 視萬物猶野馬塵埃兮: 만물을 아지랑이와 먼지같이 보고  
 遊心乎鵬背之青天: 봉새 등 위 푸른 하늘에 마음 노닐게 한다.

라고 말하며 고난과 좌절로 점철된 삶을 莊子の <逍遙遊>篇 낭송으로 잊고자 한다. ‘소요유’란 구속이 없는, 절대의 자유로운 경지에서 노니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 세계의 구속을 벗어나, 도의 세계, 초월적인 자유로운 경지에서 노닐며 참된 행복을 갈망했던 장자를 떠올린 것이다. 무한한 허공을 힘차게 날아올라가 미지의 북해로 날아가는 大鵬의 즐거움을 만끽하고자 한다. 그래서 만물을 아지랑이나 먼지 같이 보고, 봉새 등 위 푸른 하늘에 마음 노닐고 싶은 호기를 부러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장 사상의 애호는 정신적인 안락을 구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결코 노장 사상을 신봉한 것은 아니었다. 유교적 정치 이념에 충실한 관리로서 놀재의 이상은 어디까지 왕도정치요 삼대의 지치주의였다.

놀재의 유교적 천하관을 다룬 또 다른 작품은 <登泰山小天下賦>이다. 이는 『孟子』 「盡心句章上」에 나오는, “공자께서 동산에 올라서는 노나라가 작다 하시고, 태산에 올라서는 천하가 작다 하셨다.10)”라는 맹자의 말에서 제목을 빌린 것이다. 놀재는 일생 동안 태산은 물론이고, 중국 어느 곳에도 가본 적이 없다. 그저 독서를 통해 얻은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실제 이상으로 현장감 넘치고 박진감 있게 그려낸 것이다. 먼저 “타고난 氣概를 풀어내고, 奇異함을 알고자”라고 하여 태산 등정의 의도를 밝히고, 이어 태산에서 내려다본 구주의 모습을 묘사하고 성인

10) 『孟子』, 「盡心句章上」, “孔子曰 登東山而小魯 登泰山而小天下.”

의 위업을 기리며, 자신의 포부와 정치적 소신 등을 피력한다. 놀재는 “장자의 학문이 어찌 나의 학문이겠느냐?”<sup>11)</sup>라고 반문하며 대인 선생의 발을 빌려

子徒知山之大: 그대는 산이 큰 것만 알았지  
 不知吾道之大也: 우리 도의 큼을 모르고 있다.  
 夫天能覆而不能載也: 하늘은 덮긴 하여도 신진 못하고  
 地能載而不能覆也: 땅은 신진 하여도 덮진 못한다.  
 載天之所不載: 하늘이 신진 못하는 걸 신고  
 而覆地之所不覆兮: 땅이 덮지 못하는 걸 덮는 것은  
 道之極於溥也: 도의 지극히 넓은 힘이다.  
 山能高而不能深也: 산은 높아질 수 있어도 깊어질 수 없고  
 水能深而不能高也: 물은 깊어질 수 있어도 높아질 순 없다.

라고 말하며 儒道의 위대함을 찬양한다. ‘極於溥, 入於毫’한 존재인 道를 가슴속에 지니고 있으면, 태산도芥子나 대추 앞에 불과하다고 여긴 것이다, 철저한 유학자로서의 놀재의 모습은 “나는 그대 손을 잡고 도를 탐구하여, 동문의 부자를 맞이하겠다.”<sup>12)</sup>라는 구도자로서의 남다른 각오에서도 확인된다.

공자는 六藝 중에서, 특히 예(禮)와 악(樂)을 중시했다. 사람에게 예와 악은 표리(表裏)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다. “사람으로서 어질지 못하다면 예는 무엇을 할 것이며, 사람으로서 어질지 못하다면 음악은 무엇하겠는가?”<sup>13)</sup>라고 했고, “위대한 음악은 천지와 같은 조화를 이루며, 위대한 예는 천지와 같은 절조를 이룬다.”<sup>14)</sup>라고도 했다. 또한 “예로 행동 규범을 삼아 자립하고, 음악으로 성정을 닦아 완성시킨다.”<sup>15)</sup>라고 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조화이며, 예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질서이다.”<sup>16)</sup>라

11) 『訥齋集』, 卷一, <登泰山小天下賦>, “子休之學兮 豈吾之學也.”

12) 『訥齋集』, 卷一, <登泰山小天下賦>, “吾將携子而探討兮 邀東門之夫子.”

13) 『論語』, 「八佾」, “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

14) 『禮記』, 「樂記」, “大樂與天地同和, 大禮與天地同節.”

15) 『論語』, 「泰伯」, “入於禮 成於樂.”



고도 했다. 예와 음악을 통한 다스림은 유교의 정치 이상이었다. “풍속을 순화하고 습속을 개량하는 데 있어서는 음악보다 더 좋은 게 없다.”<sup>17)</sup>라고 여긴 까닭이다.

〈黃鍾賦〉는 유교의 예악 사상을 다룬, 심오한 철학을 담은 작품이다. 황종은 12음률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음률로, 다른 모든 음률을 규정하는 근원으로 주역의 태극과 같은 존재다. 전설에 황제가 이 황종을 내는 관악기인 피리를 만들었으므로, 황종은 음률 이름인 동시에 피리 이름이기도 하다.<sup>18)</sup> 이 작품은 혼돈 속에서 황종이 생성하게 된 연유에 이어, 황제가 낭간의 좋은 대나무로 피리를 만든 과정이 뒤따른다. 황종은 천리를 주관하는 시초로, 음률의 태극으로서 모든 음의 변화를 주재하는 존재다. 처음엔 성인이 황종에 천지의 조화를 담아 2제3황의 태평성대를 이룩했으나, 戰國 시대부터 남북조 시대까지의 혼란기에는 황종이란 기본 음률 체계가 무너지면서 왕도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음률 체계의 문란은 정치 체계의 문란으로 이어지고, 정치 체계의 문란은 다시 음률 체계의 문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후 隋唐까지의 역대 왕조가 황종을 되돌리려 노력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황종이 지닌 화해의 정신을 망각하고 사치와 방종에 흐른 결과다. 마침내 ‘神人 간에 화합이 변하고, 천하의 균형이 깨지면서’ 황종은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속악이 정악을 어지럽힌 때문이다. 공자는 음란한 음악을 반대하고 순임금의 음악 같은 아정(雅正)한 음악만을 존중하였다. 그래서 “정나라의 노래는 음란하다.”<sup>19)</sup>라고 했고, “정나라의 노래가 아악을 어지럽힘을 미워한다.”<sup>20)</sup>라고 했으며, “제나라 사람이 여악(女樂)을 보내왔다. 노나라 계환자가 이를 받고 즐기라고 사흘 동안이나 조회(朝會)를 하지 않았다. 공자께서는 이에 노나라를 떠났다.”<sup>21)</sup>라고 하였다. 놀재도 정악의 퇴폐를 한탄하며 黃帝와

16) 『禮記』, 「樂記」, “樂者天地之和也。禮者天地之序也。”

17) 『孝經』, “移風易俗 非樂莫善.”

18) 金正洙, 『전라도 사람들』, 장문산, 2009, 240쪽.

19) 『論語』, 「衛靈公」, “鄭聲淫.”

20) 『論語』, 「陽貨」, “惡鄭聲之亂雅樂也.”

같은 성인의 출현을 고대하며 끝을 맺는다.

明明帝心寔黃鐘兮: 밝고 밝은 황제의 마음이 곧 황종이다  
 推心之上黃鐘兮: 마음속의 황종을 미루어  
 製律中之黃鐘: 음률 속의 황종을 만들었음이라  
 心非帝心孰折衷兮: 마음이 황제 마음이 아니니 누가 조정할고  
 昧者不知微諸律兮: 어리석은 자들이 그것을 음률에서 알아낼 줄 모른다.  
 聖人有作 採吾說兮: 성인이 나오면 내 설을 취하리라.

밝은 황제의 마음이 바로 황종으로 나타난 것이므로, 黃帝와 같은 성인의 마음을 갖지 않는 한 황종의 출현은 요원하다. 이는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성인이 나와야만, 황종이 부활하고 태평성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다.

예악을 다룬 같은 성격의 작품이 <五絃琴>이다. 오현금이란 다섯줄로 된 옛 거문고의 하나로 순(舜) 임금의 만들었다고 전한다. 순은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성인으로, 흔히 태평성대를 ‘堯舜時代’라 할 정도로 이상 정치를 이룩한 임금이다. 이 작품은 놀재가 ‘請復故妃愼氏疏’ 사건으로 貶謫된 후 고뇌의 나날을 보내던 중 쓴 것이다. 꿈속에서 순 임금을 알현하고, 그가 오현금을 타는 것을 감상하며 태평시대를 경험한 후 꿈에서 깨어나는 이야기다. 이 작품은 부당하게 임금에게 미움을 받은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꿈의 세계에서 순 임금을 알현하고, 그가 연주하는 오현금의 음악에 심취하며, 자연과 화락하고 백성을 교화하는 음악의 효용을 체득하는 과정을 다룬 것이다.

暖能如春: 따뜻하기가 봄 같아서  
 解慍宣鬱: 노여움 가라앉혀 주고 답답함 풀어주고  
 樂民和神: 백성 즐겁게 하여 마음 부드럽게 만드니  
 感春容之合節兮: 봄의 따사로움 알맞아 감격스러워라

21) 『論語』, 「微子」, “齊人婦女樂, 季桓子受之, 三日不朝. 孔子行.”

一至和而無數: 한결같이 지극한 조화 이루어 다함이 없다.  
 鳴天機之自然: 하늘 조화의 자연스러움 울려나와  
 信幽明之可悅: 정말로 온 누리가 기뻐한다.

위대한 음악은 봄처럼 온화하여, 노여움을 달래고 답답함을 풀어주며 마음을 순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나아가 하늘과의 자연스런 조화를 이루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다. 『禮記』 「樂記」에서도, “음악이란 성인이 즐기는 것이어서, 민심을 착하게 할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은 사람들을 깊이 감동시키며 풍속을 순화하고 개량해 준다. 그러므로 옛날의 훌륭한 임금들은 그것을 통한 가르침을 이룩하였다.”<sup>22)</sup>라고 했다.

공자는 순 임금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함께 그가 작곡한 음악인 소(韶)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지녔다. 그래서韶를 일러 “아름다움을 다하였고 훌륭함도 다하였다.”<sup>23)</sup>라고 평하며, “순 임금의 음악인韶를 듣고는 석달 동안이나 고기 맛을 잊을 정도로 심취하고, 음악이 이런 경지에 이르리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다.”<sup>24)</sup>라고 감탄한 바 있다.韶를 통해 순 임금의 마음을 깨달은 까닭이다.

유교의 예악 사상을 다룬 또 다른 작품은 <石鼓>이다. 석고란 周 宣王 때 사류가 주 왕실 중흥의 공적을 칭송한 글을 지어 大篆體로 새겨 놓은 북의 형상을 한 돌이다. 석고는 몇 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북경 국자감 자리에 놓여 오늘에 이른다.

이 작품은 놀재가 꿈에 우연히 석고를 얻어, 이 석고가 자기 뜻을 풀어 내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석고 자신은 원래 소중한 존재였으나, 오랫동안 버림 받은 운명에 처했다가, 주 선왕이 북으로 만들어 중흥의 위업을 기록함으로써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虞 임금의 九鼎에 비유되었던 자신이, 춘추 전국시대에는 他山之石만도 못한 신세로, 진

22) 『禮記』, 「樂記」, “樂也者 聖人之所樂也 而可以善民心 其感人深 其移風易俗 故先王著其教焉.”

23) 『論語』, 「八佾」, “子謂韶, 盡美矣. 又盡善也.”

24) 『論語』, 「述而」, “子在齊聞韶, 三月不知肉味. 曰 不圖爲樂之至於斯也.”

시황 때는 鬼物로까지 전락하게 되었음을 한탄한다. 西漢에서 隋唐까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유의 시와 소동파의 노래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고 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끼 끼고 부스러짐을 면하지 못했다.”라고 탄식하며, 놀재에게 글을 지어 세상에 알려달라는 부탁에 답하고 잠을 깨게 된다는 내용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놀재는 꿈이나 상상 혹은 환상의 기법을 통해서나마 공평무사한 왕도정치가 실현되고, 하늘의 뜻이 펼쳐진 요순의 지치주의가 도래하기를 고대했다. <夢遊>에선 3황 5제 등 성인의 업적을 찬양하고 유교의 節義觀에 토대한 역사관을 드러내며, <登泰山小天下賦>에선 중국적 천하관과 儒道의 우월성을, <黃鐘賦>에선 주역의 우주관과 황제의 예악 사상을, <五絃琴>에선 순 임금의 만들었다는 韶를 통한 예악사상을, <石鼓>에선 이상적 국가관 등을 표명했다. 5편의 부 작품을 통해, 德治에 기초한 王道政治가 실현되고, 하늘의 뜻이 펼쳐진 요순, 3대의 지치주의 시대가 구현되기를 갈망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일부 작품에 노장 사상의 자취가 나타나기도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 유교의 우월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시적 도구에 불과했다. 유교적 이념에 충실했던 유학자로서 놀재의 一念은 유학이었고, 유학에 충실한 시대관과 국가관을 견지하려 했다. 천부의 성리학적 정신과 이념을 체득하여 실천하려는 남다른 이상과 열정을 5편의 부를 통해 나타낸 것이다.

### 3. 山林處士의 樂道

속세의 영달과 무상한 환로와 번잡한 생활을 떠나 한적한 강호나 산림에 묻혀 安貧樂道하면서 즐기는 삶은 선비들이 지향하는 실천 의지였다. 일찍이 공자는, “어질도다! 顏回여!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마실 것으로도 누추한 골목에 사는 것을, 남들은 그 근심을 견뎌내지 못하지만,

顔回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아니하니 어질도다. 顔回여.”<sup>25)</sup>라고 하여, 안회의 一簞食一瓢飲의 安貧樂道를 몸소 실천하는 자세를 칭송했다.

後漢 때의 仲長統도 「樂志論」에서 “세상을 초월한 위에서 거닐며 놀고, 하늘과 땅 사이를 걸논질하며, 당시의 책임을 맡지 않고, 기약된 목숨을 길이 보존한다. 이와 같이 하면 하늘을 넘어서,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제왕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부러워하겠는가.”<sup>26)</sup>라고 하여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안빈낙도의 극치를 노래했다.

사실 淸貧을 낙도로 삼아 安貧樂道하는 것은 山林處士나 布衣寒士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권좌에 있는 자나 벼슬길에 나아간 관리 모두에게 안빈낙도는 더 없는 자랑이요 소망이었다. 놀재는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무대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담당했지만, 강직한 성품으로 벼슬길에서 번번이 회의와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다.

세상의 탐욕보다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학문에 몰두한 산림처사의 진면목을 보여준 작품에 <爲善最樂>이 있다. 隱士인 어부와의 문답을 통해 속세와 동화될 수 없는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屈原의 「漁父辭」를 연상시키는 작품이다. 먼저 빈한한 가운데서도 詩書를 벗하고, 인의도덕을 생활화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선비의 모습을 그린다. 이어 이러한 선비의 모습을 괴이하게 여긴 객이 “財富도 없고, 음악의 즐거움도 없는데, 어찌 그렇게 즐겁게 사느냐?”라는 물음에 화답한다. 구슬, 바둑, 악기, 술의 대가들은 즐거움을 물건에서 찾고, 천자, 제후, 공경, 대부들은 즐거움을 사람에게 찾은 까닭이라며, 이런 즐거움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단정한다. 그리고는 자신의 즐거움이 ‘천성에 따라 存心에 힘쓰며, 仁義에 충실한 삶’에 연유함을 밝힌다. 또한 온화하고 공손한 태도와 충성과 신의의 마음으로, “순 임금을 옹계 여기고, 도척을 그르게 여기는데 귀 기울이느”<sup>27)</sup> 자세와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로도 즐거워하는 顔氏”<sup>28)</sup>

25) “子曰 賢哉 顔回 一簞食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 顔回.”

26) 仲長統, 「樂志論」, “逍遙一世之上 睥睨天地之間 不受當時之責 永保性命之期 如是則可以凌霄漢 出宇宙之外矣 豈羨夫入帝王之門哉.”

의 여유를 강조한다. 선비의 화답은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余獨慷慨而踔發; 나는 홀로 강개에 차 뛰어 일어나  
 奉訏謨而內植: 큰 가르침 받들어 안에 심었소.  
 追堯舜於二典兮: 요 · 순전에서 요 순을 쫓아가고  
 尋孔顏於六經: 육경에서 공자와 안회 찾았소.  
 得其得而樂其樂兮: 그들이 얻은 것을 얻고, 그들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며,  
 鼓天機而同鳴: 하늘의 기틀을 쳐서 함께 울려요.

利慾으로 어지럽혀진 세상을 멀리 하고 『書經』 「虞書」의 堯典과 舜典에 나타난 성인의 자취를 따르며, 유가의 경전인 六經에서 공자와 안회의 安貧樂道の 즐거움을 추구하겠다고 말한다. 선비의 화답에 감탄한 客의 다짐으로 글은 끝을 맺는다.

美哉囂囂: 아름답다 그 자득함이여!  
 大哉熙熙: 위대하다 그 즐거움이여!  
 天下何樂: 천하의 무슨 즐거움이  
 可以代之: 그것을 대신할 수 있으랴.  
 顧余蒙魯: 본디 나는 둔하고 어리석으나  
 請嘗事斯: 그것을 일삼아 보겠소.

客의 말을 빌려 ‘自得의 아름다움과 安貧樂道の 위대함’을 찬양한다. 일찍이 孟子는 “군자가 바른 도리로써 깊이 탐구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터득하고자 함이다.”<sup>27)</sup>라고 하여 ‘자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제시한 바 있다. 선비가 ‘自得’에 힘쓰고, ‘安貧樂道’에서 즐거움을 찾는 모습을, 客은 한없이 부러워하며 본받고자 한다. 이는 淸遠으로 점철된 벼슬길을 떠나 ‘光風霽月’의 자연 속에서 안식을 찾고자 하는 놀재의 영원한 이상이 자 염원이었다.

27) 『訥齋集』, 「別集」卷一, <爲善最樂>, “耳是舜而不跖..”

28) 『訥齋集』, 「別集」卷一, <爲善最樂>, “顏氏之所樂何事..”

29) 『孟子』, 「離婁下」, “孟子曰 君子深造之以道, 欲其自得之也.”

#### 4. 時事諷刺

諷刺란 사전적 의미로는 정치적 현실과 세상 풍조, 기타 일반적으로 인간 생활의 결함·악폐(惡弊)·불합리·우열(愚劣)·허위 등에 가해지는 기지 넘치는 비판적 또는 조소적(嘲笑的)인 발언을 말한다. 풍자란 말은 『詩經』에, “시에는 육의(六義)가 있는데 그 하나를 풍(風)이라 한다… 상(上)으로써 하(下)를 풍화(風化)하고 下로써 上을 풍자(風刺)한다…이를 말하는 자 죄 없으며 이를 듣는 자 훈계로 삼을 가치가 있다.”<sup>30)</sup>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것을 후세 사람들이 한마디로 풍자(諷刺)라고 표현하였다.

그래서 “무릇 시를 지음에 큰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시대 상황을 풍자하지 못하고, 비슷한 부류를 끌어와 사물을 표현하는 작자의 뜻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국풍에 15가지가 있을 필요가 없다.”<sup>31)</sup>라고 했다. 또한 “그 사람이 지은 시를 낭송하고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음에 있어서 그의 사람됨을 모른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그의 시대를 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그 시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알 수 있으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법이다.”<sup>32)</sup>라고 했다. 이것이 한문의 여러 문체 중에서도 부가 풍유에 가장 잘 어울리는 문체 중의 하나가 되는 까닭이다. “賦라는 것은 그 사실을 그대로 펴서 곧바로 말하는 것”<sup>33)</sup>이기 때문이다.

놀재는 연산군과 중종이 다스리는 시대를 산 인물이다. 폭군인 연산군과 박원종(朴元宗)·성희안(成希顔)·유순정(柳順汀) 등 三功臣에 의한 반

30) 『詩經』, 「毛詩序」, “詩有六義焉 …上以風化下 下以諷刺上 …言之者無罪 聞之者足以成.”

31) 陳子龍, 「六子詩序」, “夫作詩而不足以導揚盛美 刺譏當時 記物聯類而見其志 則是風不必列十五國.”

32) 王國維, 「玉溪生年譜會箋序」, “頌其詩 讀其書 不知其人 可乎 是以…論其世也 是故由其世以知其人 由其人以逆其志.”

33) 『詩經集傳』 註에 “賦者, 敷陳其事而直言之者也.”라고 했다.

정으로 왕위에 오른 유약한 임금인 중종이 다스리는 불운한 역사를 겪은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풍자로서 표현한 작품이 <弔五王>으로, 당나라 則天武后와 그 잔당에 의해 죽음을 당한 五王을 애도하는 글이다. ‘五王’이란, 桓言範, 敬暉, 崔元暉, 張柬之, 袁恕己 등으로, 간신인 張易之와 張昌宗을 죽이고, 武后를 폐위시켜 中宗을 황제로 옹립한 다섯 공신을 말한다. 이들은 무후의 잔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까닭에, 결국 누명을 쓴 채 비극적인 죽음을 맛보아야 했다. 놀재는 이들이 훌륭한 일을 하고도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실패한 일을 두고두고 아쉬워하며 賦를 통해 나타낸 것이다. 먼저 “자신을 잊고 순국하여,禍를 입지 않은 이 없다.”라고 하여 五王에 대한 슬픈 감정을 드러낸 데 이어, 무왕의 찬탈과 장역지와 장창종의 폐악 무도한 무리들의 행위를 규탄하고 五王의 의거를 찬양한다. 그러나 악의 근원을 뽑아버리지 못하고 방심한 사이, 武三思의 역습으로 죽음을 당하고, 중종마저 독살되는 비극적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통탄한다. 나아가 五王 자신들은 물론이고 중종의 죽음까지 불러온 恨은 천지가 다하는 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뼈아픈 과오에 대한 통한의 감정과 그들이 남긴 의로운 기백에 대한 진정어린 칭송과 추모의 정을 담은 위로의 말로 끝을 맺는다.

卒不免於啖: 마침내는 독 먹는 일을 면치 못했다  
 天長地久恨又可滅: 천장지구 영원토록 한은 이어지리.  
 想泉下之痛哭: 황천에서의 통곡 생각한다.  
 縱不睹王之貌兮: 오왕의 모습 눈앞에 볼 수 없어도  
 義氣凜凜乎至今: 의로운 기백은 늠름하게 지금껏 전해진다.  
 跪嗽辭以薦桂酒兮: 꿇어앉아 조사 올리고 제주 드리니  
 庶英靈之來歆: 영령은 내림하여 흥향하소서.

이 작품은 중국 당나라 충신인 五王에 얽힌 역사적 사실을 빌려, 反正에 의해 왕위에 오른 中宗이 반정공신들을 위시한 훈구파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해 조광조를 위시한 신진 사류의 대량 희생을 초래한, 당대의 뼈



아픈 현실에 대한 냉엄한 비판과 통한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조정에 일대 파란을 몰고 온 ‘請復故妃愼氏疏’ 사건으로 인해, 1510년 8월 23일 날제는 남평으로, 沖庵 金淨은 보은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반정공신을 위시한 元老派와 신진 사류의 대립으로 발전하여, 이후 己卯土禍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날제는 44세 되던 중종 12년(1517) 봄, 어머니를 봉양한다는 명분으로 순천부사로 나갔으나, 그 해 10월 모친상을 당해 3년간의 복상 중에 있었던 관계로, 己卯土禍 때와 2년 뒤의 辛巳誣獄에서 다행히 화를 피할 수 있었다.

날제는 연이은 두 사건에서 천우신조로 목숨을 구했지만, 자신과 沖庵를 변호하는 데 앞장섰던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 사류들이 己卯土禍에, 자신과 함께 ‘乙亥疏’에 참여했던 沖庵과 ‘을해소’를 주도한 인물에 대한 대간의 請罪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했던 안당(安瑯)이 辛巳誣獄에 얽혀 희생된 것을 지켜보면서, 五王을 弔喪하는 글로써나마 살아남은 자로서의 자책감 내지 자괴감을 표현한 것이라 여겨진다.

## 5. 愛國 忠君

<平倭>는 三浦倭亂을 평정한 사실을 읊은 작품이다. 삼포왜란이란 1510년(중종 5) 삼포에서 일어난 일본 거류민들의 폭동사건을 말하는데, 庚午年에 발생한 까닭에 ‘庚午의 變’이라고도 부른다. 조선은 건국 후 무질서하게 입국하는 왜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삼포 즉, 釜山浦·乃而浦·鹽浦를 개항하고 왜관(倭館)을 설치했으며, 일시적인 체류가 아닌 개항장에 거주하는 항거왜인(恒居倭人)의 수를 총 60호로 한정시켰다. 그런데 그 수가 점점 늘어났고, 처음 약정된 60호 외에는 일본으로 돌려보내는 쇄환정책의 실시를 정부가 머뭇거리면서 커다란 사회 문제로 비화되었다. 반

정도로 즉위한 중종이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불만을 품은 왜인들은 급기야 삼포왜란을 일으킨 것이다. 1510년 4월 삼포의 왜인들은 조선 침략을 획책하던 대마도주와 연합해 4천-5천에 달하는 난도(亂徒)들을 이끌고 부산포와 제포에서 약탈·학살 등의 만행을 자행하며, 웅천성·동래성까지 침공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조선 정부는 군대를 파견하여 이들의 징벌에 나서게 되었다. 조선 군대는 세 방면에서 왜적을 공격하여 섬멸시켰으며, 그 결과 삼포 거류의 왜인들은 모두 대마도로 도주하고 마침내 난은 평정되었다.

놀재는 삼포왜란에서의 조선군의 승리에 대한 환희와 함께 유비무환의 자세를 되새기고자 이 작품을 쓴 것이다. 먼저 “庚午年 4월 여름, 蚩尤가 낮에 번득여”라고 하여 왜란의 발발을 알리고, “병장기 튀는 불 밤하늘을 밝히고, 전투로 흘린 피 땅을 적셨다.”라고 하여 전쟁의 참혹함과 처절함을 그린다. 이어 도주하거나 적에게 투항하는 자가 속출하고 조정에선 우왕좌왕하는 사이, 웅천과 제포가 함락되는 위기까지 처하게 된 당시의 전황을 묘사한다. 그러나 좌의정 柳順汀(1459-1512)을 都元帥로, 병조참판 安潤德(1457-1535)을 都巡察使로 임명하여 왜란을 평정하게 된 과정을 서술하고, 조선군의 용맹스런 모습을 찬양하였다. “쌓인 시체는 언덕을 이루고, 적이 흘린 피가 내를 이루었다.”라고 할 정도의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다.

雪恥就今日之快: 치욕 씻어 오늘 이리 통쾌하고  
 戎功眇視乎前古: 전공이 전에 없이 크고 크구나.  
 凱歌雷喧而拂雲: 개선의 노래 우레 같아 구름 찌르고  
 士卒梟噪而齊舞: 사졸들 오리 떼 같이 와글거리며 춤춘다.  
 邊氓蘇息: 변경 백성들 되살아나  
 安堵如昨: 지난날과 다름없이 편안하다.  
 獻捷闕下: 대궐에 승전 아뢰고  
 四百其馘: 적의 귀 자른 것 4백이라.  
 庭臣稱賀: 조정의 신하들 하례하니  
 天顏有喜: 임금의 얼굴 희색이 돈다.

그러나 마냥 승리감에 도취하지 말고, 더욱더 경계를 엄하게 하라고 촉구한다. “이겼다고 함부로 우쭐대지 말고, 공을 탐내 사단을 일으킨 자는 법으로 처단하며, 두려워하여 전투를 겁내는 자는 다 몰아내라.”<sup>34)</sup>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한다. 더욱이 “우리 조선은 오랑캐들에게 사방에서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으므로, 변방 방비를 위한 장대한 계획을 세우라.”<sup>35)</sup>라는 당부를 잊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적들이 침범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토방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장기적이고 원대한 유비무환의 대비책을 강조하며 끝을 맺는다.

이 작품은 삼포왜란에서의 우리 군의 승리의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진한 감동을 자아낸다. 특히 우리 군의 ‘臨戰無退의 용맹스런 전투 모습’이나 패전한 적의 처참한 모습을 묘사한 부분 등은 마치 전투 현장에서 서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할 정도로 표현이 입체적이고 역동적이다.

## 6. 抒情의 美學

당의 白居易는, “무릇 사람들이 세상일에 대해 느끼게 되면 반드시 감정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한 뒤에 감탄을 말하게 되고 그것을 읊조리게 되며, 노래를 만들어내게 된다.”<sup>36)</sup>라고 했다. 또한 孔穎達은, “생각의 진행은 외부의 사물이 그것을 움직여 일으키는 것이다. 기쁘고 즐거운 생각이 있으면 즐겁고 온화한 감정이 생겨나 칭송하는 노래가 지어지고, 슬프고 우울한 생각이 있으면 애상의 감정이 생겨나고 원망과 비방의 소리가 생겨난다.”<sup>37)</sup>라고 했다. 시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노래한 것이다. 그러

34) 『訥齋集』, 「別集」卷一, “捷勿曰捷 貪功開釁者置法 畏懼怯鬪者盡黜:”

35) 『訥齋集』, 「別集」卷一, “矧我朝鮮 四面受攻 山戎處乎北西 島夷介乎南東 患非此有而彼無 防豈夷急而 戎緩俾無一隙之可入 樹備邊之長算.”

36) 白居易, 「策林」, “大凡人之感於事 則必動於情 然後興於嗟嘆 發於吟咏 而形於歌詩矣.”

기에 슬픈 일을 당하면 슬픈 노래가 나오고, 기쁜 일을 만나면 기쁜 노래가 나오게 된다.

놀재는 고상한 인품과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로 누구보다도 정의감이 투철했다. 일생을 두고 불의에 대해서는 일절 타협하거나 용납하는 법이 없었다. 이는 전라도사로 부임한 이듬해, 연산군 총희의 아비라는 것을 이용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우부리(소부리)를 나주 금성관에서 杖殺시켰고, 헌납이 된 지 불과 20일 만에, 銓曹의 천거 없이 왕의 외척을 부당하게 승진시키자 열흘 동안 논쟁을 계속한 끝에 임명을 철회시켰으며, 의복시의 시관으로 차출되었으나 왕명을 거부하여 하옥의 위기까지 처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나이 42세 때인 중종 10년(1515) 담양부사 재직 시 그의 발의로 순창군수 金淨(1486-1521)과 무안현감 柳沃(1487-1519)과 함께, ‘乙亥疏’라 불리는 「請伏故妃愼氏疏」를 작성한 일은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도 초개처럼 여기는 그의 강인한 성격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한 성격은 조정에서 용납되기 어려워, 결국 관직의 대부분을 외직으로 전전하다 생을 마쳐야 했다. 그러나 놀재는 정치적인 면에서보다는 가정적인 면에서 더욱 불행했다. 그 불행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의 잇단 죽음이었다. <擬自悼賦>는 漢 成帝의 後宮인 반첩여가 조비연의 등장으로 사랑을 빼앗기고, 재앙이 강보에 싸인 아이에까지 미치자, 자신의 불운한 신세를 슬퍼하여 지은 <自悼賦>란 작품을 모방하여 쓴 것이다. 놀재는 <擬自悼賦并書>에서

나의 경우는 반첩여에 비한다면 더욱 참혹하다. 나는 어려서 아버님(1488년, 15세)을 여의고 형님께 배웠는데 형님마저 세상을 떠났다. 계해년(1503년, 30세) 겨울에 딸아이가 죽었고, 지난해(1506년, 33세) 여름에 딸과 아들이 죽었으며, 겨울에는 또 아내가 죽었다. 아아, 무신년(1488)부터 병인년(1406)까지는 太歲가 두 번도 돌지 않았는데 이토록 화가 여섯 번이나 혹독

37) 孔穎達, 「詩大序正義」, “志之所適 外物感焉 言悅豫之志 則和樂興而頌聲作 憂愁之志 則哀傷起而怨刺生.”

하게 이르렀다. 비록 수명의 장단은 타고난 분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자초한 일일까 두려웠다. 그러나 스스로 반성해 보아도 그럴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해, 감회를 펴서 부를 지어 반첩여의 부 뒤에 붙인다.<sup>38)</sup>

라고 하여 <의자도부>를 짓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15세부터 33세까지 불과 18년 사이에 부친, 백형, 아들 하나, 딸 둘, 부인과의 영원한 이별은 더할 수 없는 불행이었다.

이러한 불행이 혹 “自業自得일까 싶어, 아무리 반성해도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답답한 심정과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한탄한 말로 글을 시작하여 “무신년 정월, 내 죄 하늘에 닿아 흑독한 양화 내렸다.”<sup>39)</sup> 라는 罔極之痛의 심정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모친의 사랑과 백형의 가르침으로 사마시에 합격하는 영광으로 부러움을 사기도 했음을 말한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무오년 유월 가을 폭풍이 느닷없이 連枝를 꺾었다.”<sup>40)</sup>라고 하여 백형을 잃은 割半之痛의 슬픔과 남은 형수와 조카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이후 사별의 아픔을 딛고 학업에 정진한 결과 대과에 합격하여 조관의 서열에 오르며, “타고난 성품에 충실하며,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는 관리로서 결연한 각오를 다지기도 했지만 불행은 이어져 갑자년에 딸과 아들을 잃은 西河之痛을 겪었다. 자녀를 잃은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그해 겨울, 설상사상으로 홀연 부인마저 자신을 떠나가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놀재는 유명을 달리한 부인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廿九年眞一瞥兮: 29년은 정말 눈 깜짝할 새였고  
 委環佩其若遺: 아내는 옥고리 패물 버리듯이 놓고 갔다.  
 悼幽蹤之日遯兮: 저승길 떠난 것 날로 멀어짐 서러우니

38) “昔 班婕妤賦自悼 蓋班災聯嬰祿 感弘秋扇 其爲悼最 然予比班又慘焉 余早失怙 學於兄 兄又逝. 及癸亥冬 哭女 往年夏 哭女與男 冬又哭妻 噫 自戊申至丙寅歲 未再周 而茲禍及六之酷 雖曰脩短有分劑 猶恐已作之召 而自反不獲 敘懷著賦 配班之後”.

39) 『訥齋集』, 卷之一, <擬自悼賦>, “歲黃猿之孟暉兮 罪上通而降酷.”

40) 『訥齋集』, 卷之一, <擬自悼賦>, “暨黃駒之徂暑兮 秋飄忽折其連枝.”

號無聞而招不知: 외쳐도 들리지 않고 불러도 알지 못 한다.  
 雖圓厚之久長兮: 하늘과 땅이 오래간다고는 하지마는 가슴 아프다.  
 痛更覲之何時: 다시 만날 때는언제가 될 것인가.  
 疚余中之酸楚兮: 내 가슴 쓰라림 괴롭거니와  
 銜袞袞之情悲: 한정 없이 계속되는 슬픈 마음 지니고 산다.  
 抱遺籬於膝: 남기고간 어린 것 무릎 위에 안으니  
 而余心淚浪浪其交頤: 눈물이 왈왈 턱으로 해 마주친다.

아내와의 지난 29년은 순간 같은데, 남겨진 꽤물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만날 기약이 없는 길로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더해만 가고, 남기고 간 자식 걱정에 눈물을 가누지 못한다. 딸과 아들을 잃은 이후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인 방하동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논밭 가꾸며 전원의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꿈을 꾸기도 했던 놀재에게 부인을 잃은 고분지통은 반복된 불행의 정점이었다. ‘봄비 머문 뜰의 매화의 아름다움’을 지녔던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이내 하늘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난다. 문두에 ‘하늘은 어찌하여’란 말을 반복하며 부친, 백형, 자식, 아내의 순서로 죽음을 언급하여 슬프고 답답한 심사를 풀어낸다. 같은 순서로 죽음을 말하고는 문미에 ‘슬프다’를 반복하며 끝을 맺는다.

사악한 무리들이 판치는 정치 무대에서 놀재는 늘 외롭고 고달픈 존재였다. 그러한 자신의 신세를 꽃에 비유한 작품이 <海棠>이다. 놀재의 부중에서 가장 문학성이 풍부한 작품으로 손꼽힌다. 가냘프고 섬세한 언어로 아름답게 표현된 한 편의 서정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래 해당화는 모란의 한 부류인데, 모란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태”를 한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남쪽 땅에 수령으로 가서(歲次黃龍 出守南中)’ 얻은 몇 떨기 해당화가 개화한 기쁨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푸른 잎에 싱싱함 드러나고, 붉은 꽃받침에 봄날 빛이 비치자, 빨간 빛깔의 물이 드는”<sup>41)</sup>, 이 해당화의 아름다움은 吳越의 경국지색에 비유될 정도였다. 그러나 어느새 낙화에 이르게 되고, ‘누각 위의 가인이 옥 부서지듯 사라지는 소리’

41) “挽句芒於綠葉。逗春暉於絳萼。染猩血之膩潤”

에 놀라 놀재는 환상에서 현실로 돌아온다. 이내 자신을 ‘남쪽 나라 출신의 병든 사나이’라고 자탄하며 소인들의 틈바구니에서 벼슬하는 현실을 원망한다. 모란과 도화 같은 무리들이 조정에서 날뛰고, 해당화 같은 자신은 변방을 떠도는 입장에 있다.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리며 체념한다.

雖然素富貴: 본래부터 부귀 속에 살면  
 行乎富貴: 부귀에 어울리게 행동하고  
 素貧賤: 본래부터 빈천하면  
 行乎貧賤: 빈천에 어울리게 행동하니  
 固不可以此而爲悲: 본디 이 일로 슬퍼해서는 안 되고  
 亦不可以彼而爲喜: 또한 저 일로 기뻐해서도 안 된다.  
 寄命於造化之無私兮: 조화의 공평무사한 데 운명 붙이고  
 任自榮而自悴: 절로 꽃 피어났다 절로 시들게 맡기니  
 我亦徘徊於其下兮: 나 또한 그 아래서 어슬렁이며  
 嗅餘香而樂只也: 못다 한 향기 맡으며 즐거워하리.

협난한 정치 역정에서 자신이 당한 고생을 덧에 걸린 새에 비유한 작품이 <哀大鳥>이다. 이 작품은 소나무에 등지를 틀고 사는 흰 색의 큰 새를 노래한 것으로, 큰 새가 잡혀 비참하게 고생하는 것에 붙여 자신의 고달픈 처지를 달래 보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어떤 새 한 마리가 소나무에 등지를 틀고 새끼 세 마리를 낳았다. 백설 같이 희고 고운 자태와 맑은 소리로, 기러기와 따오기도 벗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는 하인에게 새를 가져오게 하여 자신의 뜰 안에서 길렀고, 새를 귀여워하여 조석으로 감상하며, 동자에게 덧을 놓지 못하게 했다. 이 새는 긴장한 날개와 밝은 심성과 험거로움을 사랑하여 神鶴에다 비길 정도였다. 그러나 뜻밖에 간악한 인간이 설치해 놓은 덧에 걸려 털이 뽑히고, 붉은 피로 물들고 날개마저 부러지는 비극을 맞았다. 스스로 그물에 가서 걸린 어리석음을 탄식하며, 신선이 산다는 봉래산이나 곤륜산에 가서 주살이나 그물 걱정 없이 살기를 기원한다. 이어 “봉새처럼 회오리바람을 타고 구만 리 장천을 날지 않고, 살진 먹이 바라다가 재앙을 불러 왔느냐?”라는 아쉬움을 드러낸다. 포

약무도한 고장에서 덕을 감추는 것은 철인의 빛나는 지혜인데, 날개털의 아름다움을 지니고서 감추고 피할 줄 모르냐고 매섭게 질책한다. 어찌면 “벽옥을 품으면 죄가 되고, 쓸모 있는 물건에는 재앙이 따른다.”라는 것이 자신이 인간 세상에서 터득한 지혜일지 모른다.

苟自安於不材: 참으로 쓸모없음에 스스로 편히 여겨  
 庶可終乎天年: 타고난 목숨 다 살 수 있기 바란다.  
 鶴鷄小而能全: 뱀새는 작아도 온전할 수 있는데  
 天胡畀汝以美質: 하늘은 왜 너에게 아름다운 자질 주고  
 又胡不與其所安: 또 어찌하여 안주할 곳 주지 않았는가.  
 然則乃何: 그러니 어찌해야 하나.

쓸모 있음(材)보다는 쓸모없음(不材)을 편안히 여겨 천수를 다하는 것이 최상이다. 뱀새는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온전할 수 있는데, 큰 새는 다른 새보다 아름다운 자질을 지닌 까닭에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 세상사도 마찬가지다. 결국 “나는 쓸모 있음과 쓸모없는 사이에 있겠다(吾將處乎材與不材之間)”라는 다짐으로 마무리한다. 이는 『莊子』 「山木」第二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설화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장자가 산 속을 가다가 가지와 잎이 무성한 큰 나무를 보았다. 나무꾼이 그 옆에 있으면 서도 나무를 베지 않아 장자가 산 속을 가다가 가지와 잎이 무성한 큰 나무를 보았다. 나무꾼이 그 옆에 있으면서도 나무를 베지 않아 그 까닭을 물으니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다. 장자가 말했다. “이 나무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타고난 수명을 다 누리려는구나.” 장자가 산에서 내려와 친구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친구는 기뻐하며 하인에게 거위를 잡아 요리를 하라고 했다. 하인이 물었다. “그 중 한 놈은 잘 울고 한 놈은 울 줄을 모르는데 어느 놈을 잡을까요?” 주인이 말했다. “울지 못하는 놈으로 잡아라.” 다음 날 제자가 장자에게 물었다. “어제 산 속의 나무는 쓸모가 없어 천수를 다했는데, 오늘의 거위는 쓸모가 없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장자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재목이 되고 재목이 되지 않는 것의 중간에 처신하겠다. 그러나 재목이 되고 재목이 되지 않는 것의 중간이란 것은, 도와 비슷하기는 하나 참된 도는 아니므로 화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sup>42)</sup>



“산 속의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살아남고, 집 거위는 쓸모가 없어서 잡혀 죽는다.”라는 이 이야기는 ‘쓸모 있고 없고’를 떠난 허심, 무심의 경지, 집착이 없이 자유로운 경지에 처신할 것을 암시한다. 동시에 “몸을 온전히 지켜 환란을 모면하려면, 스스로를 공허하게 하고 천지자연과 시대의 조류에 순응하라.”라는 교훈을 던져준다.

<哀大鳥>와 짝을 이룬 작품으로, <聞杜鵑>이 있다. 이 작품은 놀재의 부 중 가장 짧다. 먼저 “종이 창문에 달빛 스며들고, 술바람 소리와 돌 샘물 흐르는 소리 들려와 마음은 한 없이 맑기만 한 가운데, 서재 밖 수풀에서 소쩍새가 울고 있는”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묘사한다. 이어 밤새 내내 울어대는 소쩍새가, 아황과 여영, 왕소군, 두보, 소옹, 그리고 원정 떠난 남편을 둔 여인을 떠올리며 슬픔을 더한다. 다음으로 초점을 옮겨, “남쪽 고을의 떠돌이로 황정경의 글자 하나를 잘못 읽은 죄로 속세로 귀양한 존재”라고 하여, 옥당에서 쫓겨나 외직으로 물러나게 된 사연을 언급한다. 아울러 재기를 꿈꾸며 시기를 기다리나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를 불안감을 드러낸다.

困於枳棘: 가시밭 속에서 곤욕당하며  
 苦叫永宵: 괴롭게 긴 밤을 외쳐  
 訴편怨罔極: 원한 하소연이 그침 없다  
 桂枝蔥蒨: 계수나무 가지 싱싱한데  
 蟲蟲長春: 화기 넘치는 긴긴 봄이라  
 閉口疾逝: 입 다물고 빨리 떠나가서  
 可以安汝之身: 네 몸을 편안히 하여라.

평생을 가시밭길로 점철된 정치 역정을 돌아보노라면 회한과 원망의 감

42) 『莊子』, 「山木」, “第二莊子行於山中 見大木枝葉盛茂 伐木者止其旁而不取也 問其故 曰無所可用 莊子曰 此木以不材得終其天年 出於山 舍於故人家 故人喜 命豎子殺雁而烹之 豎子請曰 其一能鳴 其一不能鳴 請奚殺 主人曰 殺不能鳴者 明日 弟子問於莊子曰 昨日山中之木 以不材得終其天年 今主人之雁 以不材死 先生將何處 莊子笑曰 周將處乎材與不材之間 材與不材之間 似之而非也 故未免乎累.”

정이 끝이 없으리라. 그러기에 ‘계수나무 가지 싱싱한, 화기 넘치는 긴긴 봄을 맞아서도, 피를 토하며 울어대는 두견’에게 빨리 떠나 몸을 편히 하도록 당부한다. 어찌면 어둡고 답답한 현실 정치에 대한 미련을 훌훌 털어 버리고 떠나고 싶은 자신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일지도 모른다. 당대를 대표하는 절의의 선비이지만 개인의 가족사와 정치 역정에 담긴 인간적인 애달픔이 줄줄이 녹아 있어 읽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 7. 結論

이상에서 놀재의 부 12편에 대해 내용상의 특징을 1.王道讚揚·至治憧憬 2.山林處士의 樂道 3.時事諷刺 4.愛國·忠君 5.抒情의 美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놀재 부 12편 중 <夢遊>, <五絃琴>, <石鼓>, <登泰山小天下賦>, <黃鍾賦> 등 5편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주로 꿈이나 상상 내지는 환상의 기법을 통해, 왕도를 찬양하고 지치를 동경하는 소망을 나타냈다. <夢遊>에선 3황5제 등 성인의 업적을 찬양하고 유교의 절의관에 기초한 역사관을, <登泰山小天下賦>에선 중국적 천하관과 儒道의 우월성을, <黃鍾賦>에선 주역의 우주관과 황제의 예악 사상을, <五絃琴>에선 순임금의 예악 사상을, <石鼓>에선 이상적 국가관 등을 표명했다. 놀재는 5편의 부를 통해, 德治에 기초한 王道政治가 실현되고, 하늘의 뜻이 펼쳐진 요순, 3대의 지치주의 시대가 구현되기를 갈망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일부 작품에 노장 사상의 자취가 드러나기도 하나, 이는 유교의 우월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했다. 성리학적 정신과 이념을 체득하여 실천하려는 남다른 이상과 열정을 5편의 부를 통해 나타낸 것이다.

2) 淸貧을 樂道로 삼아 安貧知足하는 것은 예로부터 모든 선비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놀재는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면서도, 강직한 성품으로 벼슬길에서 번번이 회의와 좌절을 맞보아야만 했다. 그래서 늘 세상의 탐욕보다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학문에 몰두하는 산림처사를 염원해 왔으며, 그러한 의지를 담은 작품이 <爲善最樂>이다. 屈原이 <어부사>에서 은사인 어부와 의 문답을 통해 속세와 동화될 수 없는 작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처럼, 놀재는 <爲善最樂>에서 선비와 객과의 문답을 통해 선비의 진정한 즐거움을 표현했다.

3) 놀재는 폭군인 연산군과 유약한 임금인 중종 시대를 살면서, 정치적으로 많은 좌절을 경험했다. 중종반정 이후의 혼란한 시대상을 중국 당나라의 五王에 비겨 표현한 작품이 <弔五王>이다. 무후의 잔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까닭에, 결국 누명을 쓴 채 죽음을 맞이한 五王을 통해, 중종반정의 공신들에 둘러싸여 나약한 모습만을 보이다가, 己卯土禍와 辛巳誣獄 등으로 많은 선비들을 희생시킨 당시의 가슴 아픈 상황을 풍자했다.

4) 삼포왜란에서의 우리 군이 승리한 사실을 통해, 애국과 충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작품이 <平倭>이다. 왜적과의 싸움을 계기로, 국토 방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장기적이고 원대한 유비무환의 대비책을 강조함으로써 애국과 충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5) 놀재는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파란과 굴곡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놀재의 부 중에서, <哀大鳥>, <海棠>, <聞杜鵑>, <擬自悼賦> 등 4편의 작품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험난했던 가슴 아픈 사연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擬自悼賦>에서는 가족들의 잇단 죽음으로 인한 처절한 아픔을, <哀大鳥>, <海棠>, <聞杜鵑>에서는 각각 자신을 덮어 걸린 커다란 새, 모란과 같은 부류인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해당화, 밤새 피를 토하고 우는 두견 등에 비겨 능력을 지니고도 항상 정치 무대에서 소외되는 아픔을 노래했다.

## 참고문헌

- 朴祥, 『訥齋集』, 한국문집총간 18권, 19권.  
충주박씨 문간공과문중 간, 『解譯 訥齋集』, 1979.  
黃堅 편찬. 김학주 역저, 『古文眞寶』(후집)
- 광주직할시 향토문화개발협의회, 『訥齋朴祥의 文學과 義理 精神』, 광주  
직할시, 1993.
- 권순열, 「訥齋 朴祥 研究」, 『古詩歌研究』, 제21輯, 2008.  
김대현, 『訥齋 朴祥 文學에 대한 연구 쟁점과 과제』, 『한국언어문학』44,  
2000.
- 김은수, 「訥齋 賦文學의 研究」, 『訥齋 賦文學의 研究』, 『訥齋 朴祥의 文學  
과 義理 精神』, 光州直轄市, 1993.
- 김정수, 『진라도 사람들』, 장문산, 2009. 240쪽.  
김학주, 『공자의 생애와 사상』, 명문당, 1997.
- 박은숙, 「訥齋 朴祥의 文學世界」, 『漢文學論集』 제7輯, 1989.  
박준규, 「訥齋 朴祥論」, 『古詩歌研究』第1輯, 全南古詩歌文學會, 1993.  
박준규, 「訥齋 朴祥과 그의 詩文學」, 『湖南詩壇의 研究』, 전남대학교 출  
판부, 1999.
- 신태영, 「訥齋 朴祥의 賦 研究」, 『溫知論叢』, 제17輯  
이병한 편저, 『중국 고전 시학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3.  
이병한, 이영주 공편, 『中國古典文學理論批評史』, 한국방송대학, 1988.

투고일 : 2010년 7월 2일, 심사 : 2010년 7월 15일~ 8월 10일, 게재확정 : 8월 13일

<Abstract>

## A Study on Nuljae Park Sang's Prose Poems

Kim, Dong-ha

Nuljae Park Sang was known as the man of justice and principle, as well as a man of stern integrity. But he was one of the most prominent writers and poets during the reigns of King Yongsan and King Jeongjo at the time of the Chosun Dynasty. He was highly praised by King Jeongjo, the most academic king in our Korean history along with King Sejong, regarding the poems. He said, "There are only two poets' poems, that is, Park Sang and Park Eun. I think we must consider their poems the most representative poem's model." Furthermore, he was honored as a master of poets in Honam poetic circles.

The Nuljaejip, named after his pen name, the collection of his works, contains 1160 pieces of poetry and 12 prose poems including a variety of literary styles, exposing the world to his unique talents. But in spite of his great literary relics, the study of the academic world regarding his works was very poor. Among his many works, I had a special interest in his unique 12 pieces of prose poems. First of all, they have large quantities, just like full-length stories. They are rich in contents, such as the Confucian point of worldly View and historic consciousness, and righteous sense of Mencius.

In this thesis, I tried to find ou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revealed through his 12 prose poems. Therefore, I analyzed the respective prose poem thoroughly, and believed his thoughtful tendency to be typical of a follower of Confucianism. In conclusion, the contents of them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five points; praising of the rule of right and yearning of the ideal

politics, happiness of the private citizen living in the forests, satire of the current events, patriotism and loyalty to his sovereign, and aesthetics of lyricism.

**Key words : prose poem, the Nuljaejip, five points, praising of the rule of right and yearning of the ideal politics, happiness of the private citizen living in the forests, satire of the current events, patriotism and loyalty to his sovereign, and aesthetics of lyricism**